

자금조달의 에로 겪는 ESCO에 해결모델 제시

■ 김인숙 기자(kis@energycenter.co.kr)

산업 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ESCO협회와 미국 NREL(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이 공동으로 주최한 '한미ESCO워크샵'이 지난 6월 14일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렸다. 국내 ESCO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날 행사는 한미 양국의 기후변화 저감기술협력사업(CTP)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한미 ESCO사업 현황, ESCO와 금융권의 관점에서의 국내자금 조달방법 문제점, 미국 ESCO사업 조달방법, 국내 ESCO사업에 미국자금의 조달 가능성 및 국제 탄소 자금의 ESCO 사업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이번 워크샵을 통해 기후변화협약에서 거론되고 있는 기술이전 및 교도메카니즘의 이행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론으로서의 ESCO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했다. 이날 미국측 대표로 참석한 데이브 하워드는 NREL에서 연방 에너지관리프로그램의 ESPC(Energy Saving Performance Contract)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CTP 실무자로서 한미ESCO 프로젝트의 재정적 장애요인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다음은 데이브 하워드와의 일문일답이다.

Q 이번 방향의 목적은.

한미 양국의 ESCO와 금융업자, 그리고 한국의 에너지사용자가 다함께 만남의 기회를 갖고 그들에게 CTP에 대해 알리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절약과 탄소배출감소, 에너지사용자를 위한 비용절감 등의 프로젝트가 수행되길 바라며, 에너지관리공단과 NREL이 그동안 연구해온 프로젝트를 위한 재정모델을 시험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

Q NREL은 어떤 단체인가.

NREL은 미국 에너지성 산하 연구소로서 신재생에너지의 연구와 개발, 전개는 물론 에너지효율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환경과 경제에 모두 이익이 되는 이러한 기술들의 개발에 있어 세계적인 리더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연구소는 지난 74년 SERI(태양에너지조사연구소)로 설립되어 77년 콜로라도주 골든에 문을 열었고 91년 조지 부시 전 대통령에 의해 국가연구소로 지정되면서 지금의 NREL로 바뀌었다. 우리의 과학적 연구영역은 광전변환공학, 풍력, 생체추출연료 및 화학물, 에너지효율빌딩, 진보된 자동차, 태양기기, 산업프로세스, 태양열시스템, 수소연료 전지, 초전도, 지열, 에너지발전배분, 폐기물자원화기술 등 50여가지에 이른다.

지난 30여년동안 우리의 연구성과는 신재생에너지기술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룩했고, 막대한 비용절감과 재생가능한 에너지기술의 진보에 기여해왔다. 현재 NREL에는 연구원, 엔지니어, 애널리스트, 관리직, 객원전문가, 대학원생, 인턴, 계약직원 등 1100여명의 연구인력이 종사하고 있다.

Q 한미간 CTP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이것은 매우 소규모 프로그램이며 현실점에서 한미간 CTP가 엄청난 파급효과를 갖는다고 생각진 않는다. 다만, 한국의 ESCO사업 시행에 있어 장애요인들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의 시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는 한국의 ESCO업체들이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생산을 절감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SCO사업이 성장하고 강력해질수록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장애요인을 제거하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따라서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한국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저감시킬 수 있는 ESCO사업이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또 보다 장기적인 목표는 한국에서 ESCO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더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난 후 이러한 내용을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한미간 CTP의 성과는 다른 여러 국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Q 한국의 ESCO사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내가 CTP Korea의 업무를 맡게 된 불과 몇 년 사이에 한

Interview

“

한국의 ESCO업체들이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 생산을 절감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SCO사업이 성장하고 강력해질수록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장애요인을 제거하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 따라서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한국에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저감시킬 수 있는 ESCO사업이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

국의 ESCO사업은 매우 많이 성장했다. ESCO업체들은 뛰어난 엔지니어링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사업내용도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이 사업의 성장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발전하기에는 아직 몇몇 중대한 장애요인들에 직면해있다. 그것이 바로 산업자원부(에너지관리공단)가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찾는 이유이다.

우리는 언젠가 ESCO사업이 지금보다 훨씬 기술적으로 능력을 갖춘 사업이 되는 것을 보길 희망한다. 또한 뛰어난 ESCO와 그들의 재정지원을 도와주는 재정지원자들 사이에 굳건한 사업관계가 발전되길 바란다. 저가의 비정부기관에 의한 자금조달의 한계는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장애물로 보여진다.

Q 양국간의 협력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에너지관리공단과 ESCO협회는 보다 성공적인 ESCO사업의 장애요인을 처리하는 일을 매우 훌륭히 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 기관은 엔지니어들의 기술적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함께 일하고 있으며, 정부지원과 비교하여 에너지사용자와 금융기관, 그리고 ESCO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재무프로젝트의 수단으로 빠르고 저렴한 민간자금을 찾는 데 노력하고 있다. NREL과 미국 EPA는 이러한 과정에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한국 정부는 다른 나라에 비해 ESCO사업 발전을 위한 막대한 지원을 제공해왔다. 이는 지금까지 필요한 것이었고 매우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이제 이 산업이 번창하기 위해서는 ESCO가 자체적으로 유지되면서 수익을 내야 한다. 그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업계와 정부가 재무적인 여건이 건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CTP Korea에 참여하는 것이 그 방법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